

## “아들의 권유와 健協”

아들의 권유로 위투시 검사를 받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건강”이라는 글자가 빠지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예로부터 정초에 인사를 하게 되면, “올해도 건강하십시오”, “어머님, 만수무강하십시오” 등등의 건강을 기원하는 인사를 우선적으로 하였던가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년내내 건강을 최고의 위치에 두고 지키기 보다는 바쁜 생활 속에서 망각해 버리는 경우가 더욱 많다.

위암



# 덕을 살렸습니다.”

## 암을 발견, 치료에 성공한 김경호씨

그 때문에 사람들은 때때로 예기치 않은 일을 겪게 된다.

무역회사를 경영하면서 대학에 다니는 남매, 그리고 부인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하던 김경호씨(50세, K상사사장, 강동구 천호동 암사 APT).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던 그가 아들의 권유로 건협에서 건강검사를 받고 위암 초기 증상을 발견하게 된 것은 지난해 6월의 일이었다고 한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암”이라는 글자. 그러나 이제 그 당황함을 뒤로 하면서 회복되어가는 건강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 신경성 소화불량 정도로 알았습니다.

『소화가 잘 안된다고 계속적으로 느끼기 시작한지 그렇게 오래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워낙 신경이 많이쓰이는 일을 하다 보니까 피로함, 소화불량 같은 것은 병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당연스럽게 느껴졌었죠.』 자신이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는 얘기를 김경호씨는 이렇게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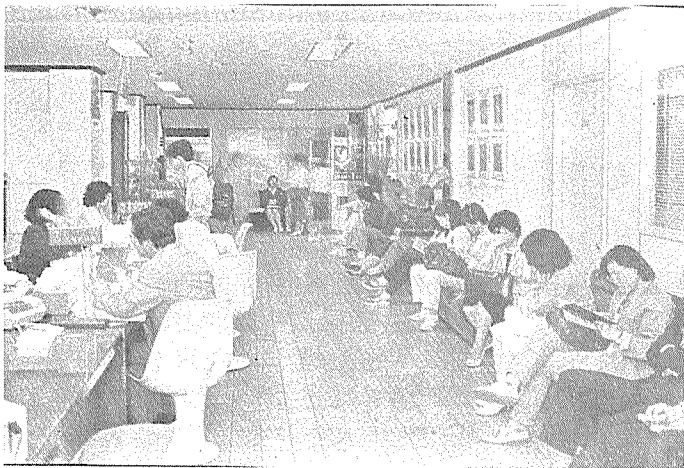
『소화불량에 좋다는 약을 사다가 먹는 것이 고작이었죠. '86년에 건강진단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만 그냥 신경성 정도니까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말해 더이상 제 건강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제가 하는 일이 무역업이니 만큼 많은 신경을 쓰게 되고, 사실 현대인 처놓고 신경성 소화불량 한번정도 알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생각했었죠.』

그러나 그것이 불찰이었다고 얘기하면서 그는 인심좋은 웃음을 웃는다. 그의 그 웃음 속에서 이제는 건강하다는 자신감을 읽을 수 있었다.

### “건강소식”에서 건강검사를 받아야할 필요성을—

어떻게 건협에서 검사를 받으시게 되셨습니까?

『우리 아들 덕분이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 있는 잡지들 속에서 “건강소식”이



◀ 학교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건강소식” 책자. 사소한 증상도 무심히 넘겨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라는 책을 우연히 보게 된 모양입니다. 여기저기 뒤적거리다 건강검사 안내를 보고 또 위투시검사를 한다는 내용을 보면서 제 생각이 났다더군요.』

김경호씨의 아들 재석군(20세, 대학생)이 “건강소식”을 보게 된 것은 지난 해 7월이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머리를 식힐겸 잡지책들을 뒤적이다가 그 책을 발견했다고 한다.

### 사소한 증상도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

『사소한 증상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글을 보면서 아버지 생각을 했었죠. 식 달걀 거의 매일 속이 안좋으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재석군의 그 한마디를 들으면서 김경호씨 가족에게서 흐르는 깊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 관심이 어쩌면 김경호씨의 병을 고친 것이 아닐까.

### 그러나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읍니다

『하지만 건강검사를 받아보자는 재석이의 말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읍니다. 적어도 제 건강에만은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사실 김경호씨는 평소의 바쁜 생활속에서도 재석군과 탁구, 테니스를 치러 다닐 만큼 의욕적이었다. 그것이 그 나름대로의 건강생활법이었던 것이다.

『재석이가 무슨 마음이 들었던지 유난히 극성스럽게(?) 권유를 하더군요. 게다가 집사람과 은혜(김경호씨의 딸, 22세, 학생)까지 합세를 했으니 제가 당해낼 재간이 있어야지요.』

## 전화로 건강검사에 관해 문의

그는 마침내 가족들의 사랑에 자신의 고집(?)을 꺾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일단 건협 서울지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다른 검사들은 아무 때나 받을 수 있지만 위투시 X-Ray는 예약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죠. 가족 모두가 일요일 아침 일찍 건협을 찾아 갔습니다.』

김경호씨는 기왕 아픈 곳없이 검사하는 것이니까 가족 모두를 종합검사를 받게 하고 싶었다고 덧붙인다.

## 휴일에까지 일하는 건협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일단 모두들 위투시 X-Ray를 제외한 모든 검사를 받고 위투시검사를 위한 예약을 마쳤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데에 적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감탄했던 것은 모두들 노는 휴일에 그렇게 하루 종일 나와서 국민건강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뭘지 모를 부끄러움도 스쳐지나갔다고 덧붙인다.

## 뭔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예상은 했지만-

그날로부터 5일 후 그들은 위투시검사를 받기 위해 다시 건협을 찾았다.

자신을 눕혀놓고 바륨용액을 먹이면서 검사를 하던 의사가 모니터에 나타나는 위 속을 바라보면서 몇가지 증상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직감했다고 말한다.

▶ 소화불량 같은 것은 일상적으로 스트레스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렇다고 “위암”일거라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위궤양정도일 수도 있겠지라고 판단했읍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 그의 가족에게는 건협의 결과통보서가 날아왔다.

그들은 당황했다. 위암이라니……

김경호씨에게 이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니지만, “위암”일 가능성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찾아가 진찰을 받아 보라는 글을 읽는 순간 압담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모두들 한동안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읍니다. 믿을 수도 없었고, 또 “암”에 걸리면 모두가 죽는다고 알고 있었으니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읍니다.』

살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대로 있을 수 만은 없었다.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했다. 마음을 가다듬고 곧바로 종합병원을 찾아갔다.

건협에서 찍은 X-Ray필름과 결과통보서를 가지고 병원을 찾은 그는 정밀검사서에서 “위암”임을 확진받았다.

조기에 발견된 것이 무엇보다 다행이랍니다

『당시 저를 진찰했던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상당히 빨리 발견되었기 때문에 암세포가 퍼진 부위만을 제거하면 별 문제 없을거라면서 저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하셨습니다.』

▶ 자칫 앓을뻔 했던 자신의 생명을 지켜준 모든 것들에 보답하기 위해 서라도 주변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겠다고 김경호씨는 말한다.



## 원인질환을 모르면 치명적인 결과

흔히들 일상적으로 느끼게 되는 증상은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들로 몰아버리고 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인이 되는 질병을 찾고 고치는데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김경호씨의 가족은 건강검사가 얼마나 중요하며, 식생활이나 운동 이전에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입을 모은다.

## 살아 있음에 감사를 느낍니다

『수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고 회복실로 옮겨졌을 때, 제가 살아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고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또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할 지도 생각나지 않았읍니다.』

김경호씨는 당시의 감격을 이렇게 표현한다.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것인가보다.

## 앞으로는 정기검사를 꼭 받겠습니다

『지금은 직장도 쉬면서, 집에서 휴양하고 있습니다. 재발 위험이 없다고는 하지만 꼭 “암” 때문이 아니라 혹시 다른데가 고장날지 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하……』

그의 밝고 건강한 웃음소리. 그는 다시 태어났다고 표현한다.

## 앞으로는 남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새삼 느꼈다고 말한다.

혹시 자신만의 평안을 위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나 반성하면서, 자칫 잃을 뻔 했던 자신의 생명을 지켜준 모든 것들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그는 주변사람들을 위해 살겠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건첩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겨울을 보내고, 돌아오는 새봄. 다시 자신의 사업 속에서 자신의 건강을 재확인하면서 활기차게 살겠다는 그의 넘치는 의욕을 바라보는 기자는 삶이라는 것 앞에 새삼 겸허해짐을 느낀다.

(이은희 글)